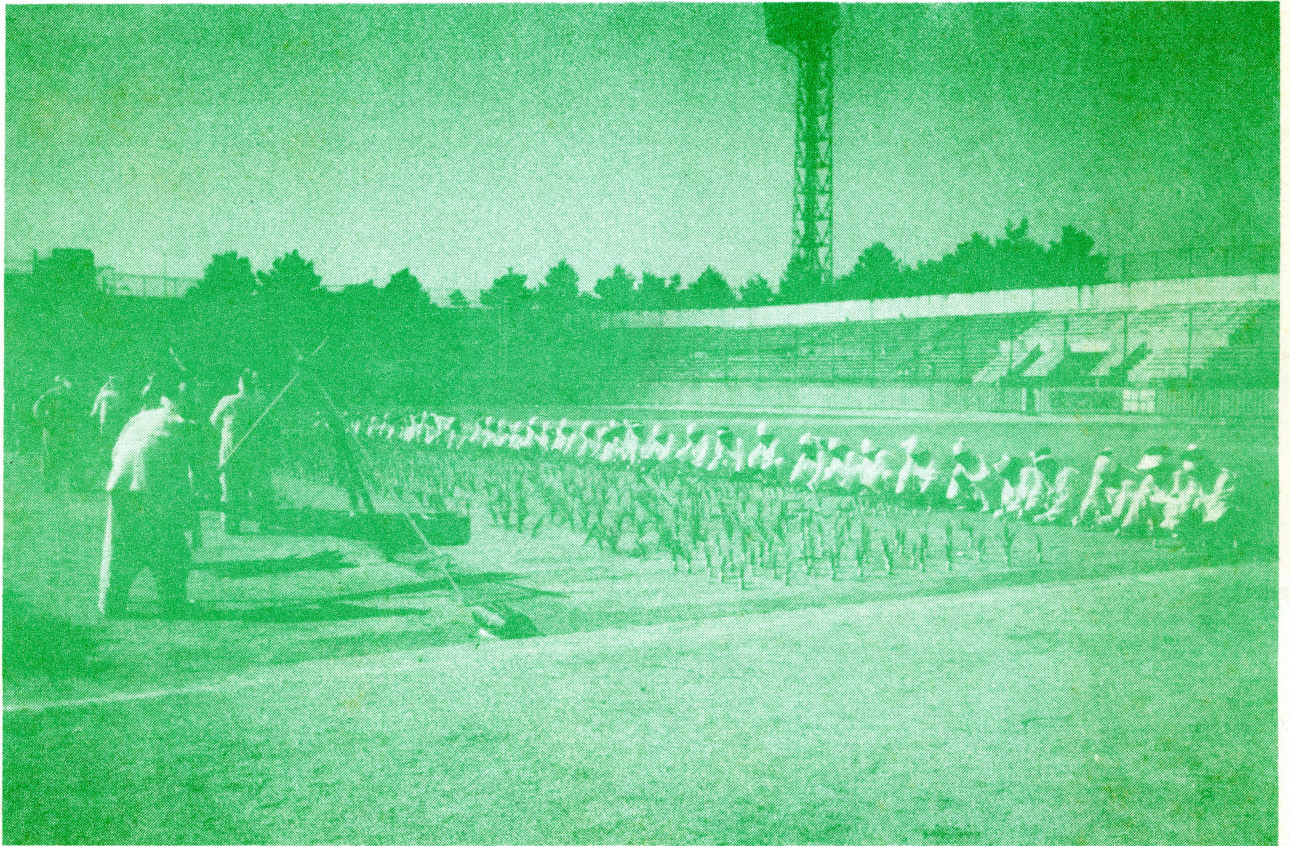


취락의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작품

청주 강서 농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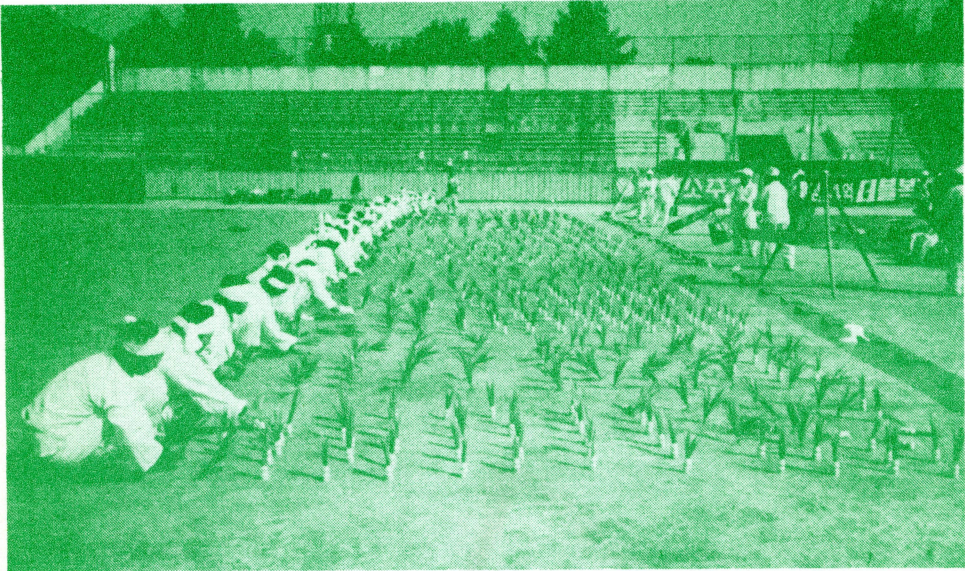


일시 : 1997년 10월 15일

장소 : 전북익산공설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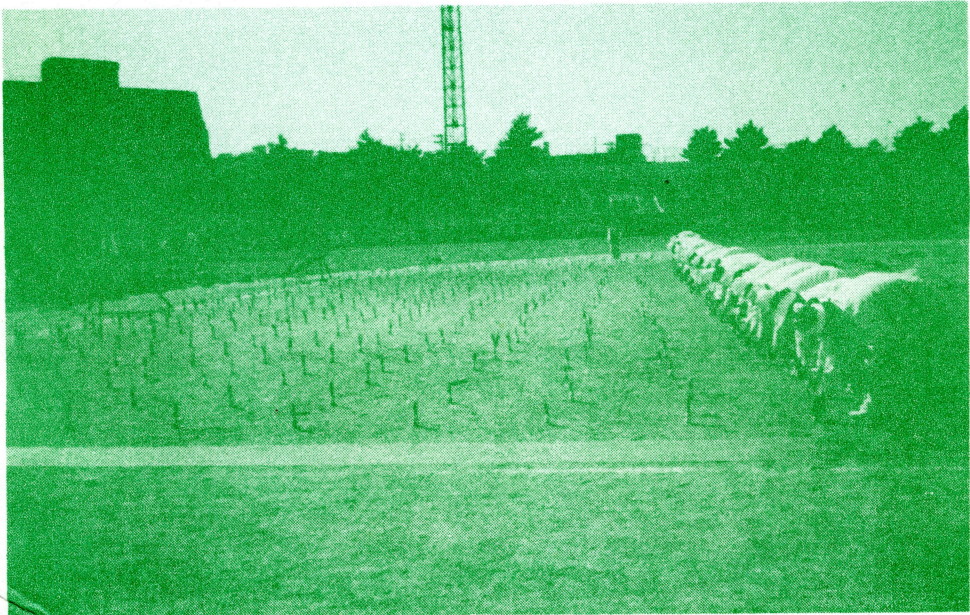
충 청 북 도

가. 모찌는 소리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에워내고	에워내세	이못자리는	에워내세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시집가소	장가가네	이못자리는	시집가고
뭉치세	뭉치세	에헤야 못자리	뭉치세

나. 모내기 소리



에헤이야	헤에 헤이야	상사나 디야	
잘덜두 하네	잘덜두 하네	상사소리덜두	잘두하네
에헤이야	헤에 헤이야	상사나 디야	
상사났네	상사났네	이 논배미에	상사났네
에헤이야	헤에 헤이야	상사나 디야	

다. 김매는 소리



오어호	에이야호 ~		
여보시오	농부님내	이내말줍	들어보소
오어호	에이야호 ~		
한일자로만	가지말고	반달같이만	올라를 가세
오어호	에이야호 ~		

라. 안팎계 소리

에헤야	야 ~아하	에이헤이이이 ~	에헤 에헤하
아 ~하	허이 어워 ~	방계 흥계	노세

농요는 생활과 연결된 노래다. 특히 두레농사에서
풍물패를 앞세우고 메기고 받는 소리는 노동의 효율
성을 높일 뿐 아니라, 멋드러진 예술이다.

청주 강서동 일대는 넓은 들판이 펼쳐 있어 농업이
발달한 곳이니, 특히 까치내를 옆에 낀 들판은 벼농
사 중심으로 두레농사가 성행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불러지던 「모찌기-모내기 논매기-안팎개(일명 논두렁
소리, 논일 중에 허리를 펴고 쉬면서 부른 소리)-논뜯
기」소리를 엮어 재구성 하였다. 강서2동의 주민 중에
서 기능자를 모아 연출한 작품이다.

- 청주 강서 농요 -

고증 및 지도 임동철 (충북대 교수)
김영진 (청주대 교수)

출연 강서 2동 흥복릉 외

감독 박응환
주무 정환철